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롬 8:38,39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지난주에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일곱 가지 장애물을 말합니다.

첫째는 환난입니다. 둘째는 곤고입니다. 셋째는 핍박입니다. 넷째는 기근이요, 다섯째는 적신입니다. 여섯째는 위험입니다. 일곱째는 칼입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등산을 했습니다. 그는 등산을 하면서 힘은 들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보화들을 하나씩 캐내면서 올라갑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시작한 믿음의 등산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러한 승리의 개선가로 이어지면서 그는 점점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마침내 그는 정상에 올라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선언, 사랑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금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애물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8절에 가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인식이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이 많으면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특징은 정보와 지식은 있어도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바닷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뜨거운 확신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만드는,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들려고 하는 일곱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열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첫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죽음에 따르는 고통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망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방해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마귀의 사망의 힘보다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 돌이 수없이 날아오고 찢어진 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천사처럼 변하기 원합니다.

스테반은 돌무덤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저주는커녕 기도했습니다. 스테반은 죽음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또 한사람으로, 폴리 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세기경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로마는 이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하기 전, 폴리 캅을 화형장의 형틀에 묶어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해라.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 때 폴리 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의 이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사망이나 죽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죽음의 반대개념입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생명’이라는 말 안에 다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생명을 나에게 주면 세상의 모든 부를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생명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높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장애물은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영을 말합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앙은 죽음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마치 연단을 통하여 풀무불에서 정금이 나오듯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만사형통하는데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걸고,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못살게 굴더라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의연히 서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믿음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게 됩니다.

넷째는 ‘권세자들’입니다. 이것은 통치자들이나 지존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정말 그 모든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권세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자에게 아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굶겼고 고문했고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악한 독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악한 권세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섯째는 ‘현재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쫓겨 다닐 수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현재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유혹입니다.

여섯째는 현재와 상반되는 개념인 ‘장래 일’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 불안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현재에 받는 고통과 미래에 닥치게 될 재앙들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합니다. 정면으로 그것과 대결하게 합니다.

일곱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악한 천사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어떤 힘입니다. 마귀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점을 치거나 점성술을 이용하여 초

자연적인 일들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환희의 고백을 합니다.

여덟째는 ‘높음’입니다. ‘power above’ 즉, 위에 있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받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 권세, 부, 명예, 높은 지위 등을 말합니다.

아홉째는 무엇입니까? ‘깊음’입니다. 이것은 ‘power below’ 즉,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가장 침체되고 낮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가난, 열사, 천대, 낮은 지위들 등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도 굉장히 힘들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얼마나 계산하고 따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주일날 장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아무리 낮고 비천한 환경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고백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참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장애물 아홉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높음이나, 깊음같은, 이런 모든 시련을 겪고 싸우고 넘어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금같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값 싸고 천박한지 모릅니다. 잘 대해주면 좋아하고 고통을 주면 싫어하고, 박수쳐주면 교회에 오고 무시하면 안 오고, 우리들의 신앙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참 신앙은 죽음을 통과합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 마치 조개 속에서 진주가 생겨나듯이, 수많은 쇠붙이와 돌이 녹아서 정금이 나오듯이 - 신앙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에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고상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만 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돌에 맞으면 어떻게, 감옥에 가면 어떻게, 배고프면 어떻게,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결정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 8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든지, 손해를 보았다든지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뿐입니다.

큰 것을 포기하라

열째는 다른 아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열거한 아홉 가지 이 외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주의 어떤 세력도, 우주의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02장을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직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직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귀와 돈과 금과 은을 예수와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1930년대 일입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있을 때 21세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2학년을 중퇴하고 보험회사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바리톤을 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는 NBC 방송국의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입니다. 얼마 후, 그는 1천5백명의 관중 앞에서, 전국으로 방송되는

무대에서 '가라 모세야'라는 흑인영가를 불러 대히트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 출연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월급도 제 때 못 받는 그 때에 안정된 출세의 길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아들을 위해 기도해 온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편의 시가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 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며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것이 이 찬송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른 뒤 방송국에 가서 정중하게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 후로 그는 찬양을 하는 가수로 변신을 했는데, 그는 빌리 그래함 전도집회 때마다 꼭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가 쉼어 형제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와 영광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타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교회에 작곡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통일교로부터 곡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약 2천만원의 수입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과 사업을 별개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믿음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2천만원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꼭 필요했지만 포기하고 나니 제 믿음이 2천만원 짜리가 된 듯합니다."

큰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값진 것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이익에 우리의 신앙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사업은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참여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사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잃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한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얻은 것만큼, 소유한 것만큼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포기했다면 집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교회를 늘 찾으시는 데니스 레인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인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집과 좋은 자동차와 화려한 생활

을 하는 자신의 친구들을 보면, “내가 계속 변호사의 길을 갔다면 저렇게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하는 회의가 생겼답니다. 하지만 자신은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는 “내가 헌신을 한 것이 잘한 일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선택은 옳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귀한 만큼, 그것이 소중한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돈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통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의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녹여주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으며, 우리의 방향과 절망과 좌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신 사랑이요, 조건 없이 희생을 치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구원을 얻은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함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